

ATS (American Thoracic Society) 2012 참가 후기

서울대학교 알레르기내과

전임의 김민혜

2012년 ATS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012.5.18-2012.5.23까지 개최되었습니다. Denver에서 개최되었던 2011년 ATS에 이어 두 번째 ATS 참석인데도 작년보다 더 설레고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처음 참석하는 미국 학회로 그 큰 규모의 학회장과 다양한 범위의 주제들, 수많은 발표들에 얼떨떨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 ATS에서는 꼼꼼히 알아보고 제대로 학회를 들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12.5.17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더 설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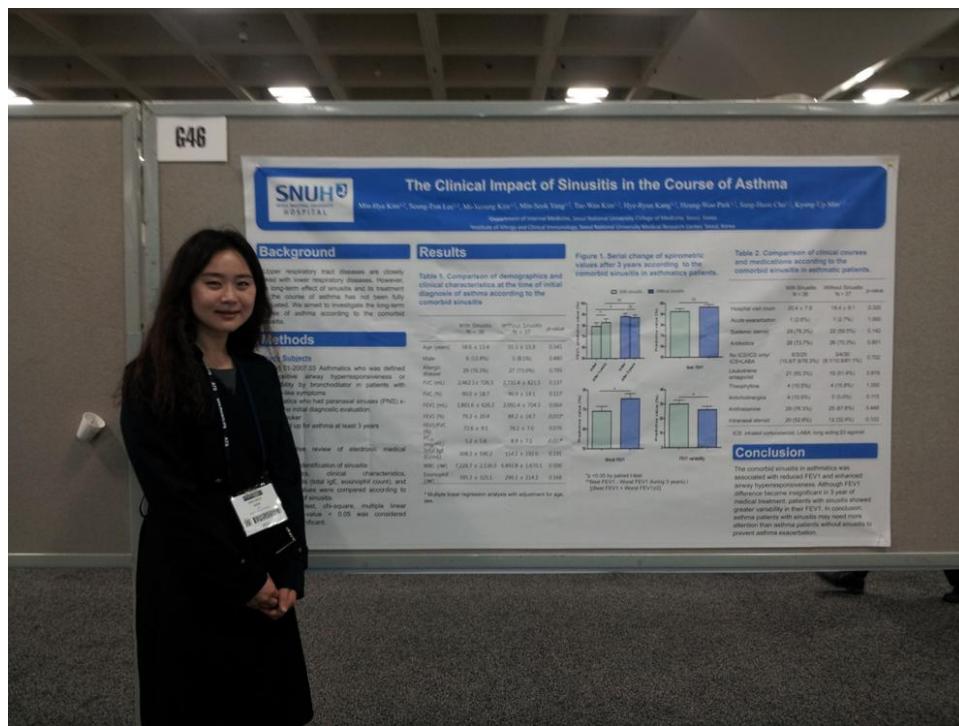
한국에서 5월 17일 오후에 출발하여 13시간 정도 비행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는데, 다시 시간은 5월 17일 11시였습니다. 처음 도착해서는 시차 때문인지 정신이 흔미하였지만, 일단 공항에서 바트(샌프란시스코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전철)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이동하여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숙소는 Pickwick Hotel로 아담하고 조용한 호텔이었으며, 학회장과는 불과 한 블록 거리로 위치도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짐 정리를 간단히 마치고, 장시간 비행으로 부어 있던 다리도 풀 겸, 식사도 할 겸하여 Fisherman's wharf로 향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의 명물로 알려진 70년 된 트램을 탔는데, 영화나 광고에서만 보던 트램을 타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드디어 한국을 벗어나 샌프란시스코에 왔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램을 운전하는 기사분들도 관광객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Fisherman's wharf에 도착하니 바다 내음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전형적인 항구 정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사자들이 쉬는 명소에도 들러 그들이 여유롭게 쉬는 모습도 구경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해산물을 먹으러 Pier 39 근처의 식당에 들어가 게와 굴 요리를 먹고, 샌프란시스코 현지 맥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ATS 학회 등록을 하고, 책자를 받아 알레르기내과 관련 주제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주제들에 관심이 갔지만, 같은 시간에 중복된 주제들이 많아 가장 관심이 있는 asthma와 immunology 위주로 주제를 찾아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학회 첫날에는 Asthma에서 Airway remodeling과 hyperresponsiveness에 관한 Scientific Symposium에 참석하였고, 이 Symposium은 asthma에서 이슈가 되어왔던 airway smooth muscle의 remodeling 및 airway remodeling으로 인한 ventilation heterogeneity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관심사의 새로운 시각 및 새로운 검사 방법들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후로는 The IL-33/ST2 axis:

New biology and new potential targets in asthma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IL-33/ST2 axis를 이해하고 virus-induced asthma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Severe asthma 를 주제로 한 session 이 있어 참석하였고, severe asthma group에 대한 각종 분석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방대한 규모의 학회라 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학회 기간 동안 접한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벅찬 ATS 학회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선 연구 내용들을 듣고 학문적 열의를 다시 한번 키워보는 큰 자극이 되었고, 학생, 연구원, 저명하신 교수님들 모두 열의를 가지고 본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열정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주제들의 포스터를 보면서, 아직 이 학문에는 연구할 분야가 너무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 너무도 소중한 학회 경험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터 앞에서 촬영



